

# 임실 아쿠아페스티벌 27일 개막 출생통보제 시행 적극 홍보

### 내달 18일까지 운영... 대형풀·유아풀 물놀이장·시스템슬라이드 등 구성

임실치즈테마파크 내 2만여 평 규모로 조성된 장미공원 한복판에서 '2024 임실 아쿠아페스티벌'이 오는 27일 개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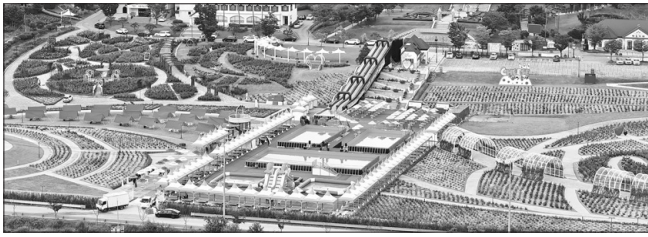
지난여름 많은 사랑을 받았던 임실군의 여름 대표축제인 '2024 임실 아쿠아페스티벌'이 임실치즈테마파크 일원에서 본격적인 여름방학 시즌인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23일간 펼쳐진다.

심민 군수는 개막을 앞둔 지난 24일 아쿠아페스티벌이 개최되는 치즈테마파크 행사 현장을 직접 다니며 안전관리 실재 및 시설물 관리 등 최종 상황 점검에 나섰다.

주요시설로는 대형풀, 중형풀, 유아풀 물놀이장과 시스템슬라이드, 중형 슬라이드 등 놀이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시스템슬라이드는 이벤트 광장 계단을 활용한 높이 약 10m, 길이 50m의 초대형 슬라이드로 이용객에게 엄청난 짜릿함과 스릴감을 선사할 예정이다.

또한 행사장 및 주변 유휴공간을 적극 활용하여 몽골텐트, 파라솔, 캠핑형 텐트 등 다양한 쉼터를 마련하는 등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



임실치즈테마파크 아쿠아페스티벌 전경.

이외에도 샤워실과 먹거리 부스 등 각종 편의시설과 행사장 내 페인트볼 사격 체험도 준비되어 있다.

특히 주말과 공휴일에는 어린이 DJ 파티, 난타 공연 등 아쿠아페스티벌 이벤트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특별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개막 당일인 27일 오후 2시에는 행사장에서 개장이벤트와 손선풍기, 물총 등 다양한 선물도 주어질 예정이다.

임실 아쿠아페스티벌 운영시간은 10시부터 17시까지이며, 최대수용인원은 1,000명, 입장료는 일반인 8천원, 임실군민은 6천원이고, 오후 2시 이후에는 기존 입장료에 2천원 추가할인을 진행한다.

입장료 구매 시 교환권 2천원을 별도로 지급하며, 교환권은 행사장 내

매점 또는 치즈테마파크 내 지정업체에서 사용 가능하다.

군은 안전 강화를 위해 전문자격증을 보유한 안전요원을 전면 배치하고, 안전 보험 가입 등을 통해 행사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매시간 수질관리를 통해 방문객들이 물놀이장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심민 군수는 "본격적인 방학 시즌에 많은 아이들이 찾아오는 행사이니만큼, 안전사고는 물론 식중독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으나, 폭염에 지친 많은 분들이 임실을 찾아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신나게 즐기고 행복한 여름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남원시, 모든 아동 출생등록 권리 보장

남원시가 출생통보제가 지난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적극 홍보에 나섰다. 출생통보제란 의료기관의 출생정보 통보로 아동의 출생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생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아동이 사해, 유기, 학대 등의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진행 절차로는 의료기관의 장이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고, 심사평가원은 모(母)의 주소지 관할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고, 모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생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 사실을 통보한다. 이를 통보받은 시읍면의 장은 신고

기간 내에 출생신고가 되었는지를 확인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해당 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 신고할 것을 통지하고, 기간내에도 출생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시읍면의 장은 감독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기록을 한다.

또한, 출생통보제 시행 이후에도 종전과 같이 신고 의무자는 출생후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관할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하지 않으면 과태료의 제재를 받게 된다.

김민주 민원과장은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를 보장하고, 출생등록으로 제도 안에서 보호받아 행복하게 자라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이 지난 24일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 '군민 체감하는 정책' 역량 집중

### 순창군,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회 가져

순창군이 지난 24일, 군청 2층 영상회의실에서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며 민선 8기 후반기의 새로운 도약을 알렸다.

28일까지 3일간 개최되는 이번 보고회는 민선 8기 후반기의 시작점에서 군정 방향을 재정립하고 핵심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영일 군수 주재로 진행된 이번 보고회에는 부군수, 실·국장, 각 부서장, 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첫날 해당 부서인 기획예산실, 행정과는 2024년 주요 사업의 추진 상황과 성과를 공유하고, 순창군의 주요 현안과 역점사업에 대한 문제점 점검과 해결 방안 모색에 집중했다.

이날 보고된 상반기 주요 성과로는 민선 8기 공약 실천·이행평가 최우수(SA) 달성, 626억 원의 국가예산 확보, 실랜드 문화체육관광부 웰니스관광지와 전북 치유관광지 10선 선정, 농촌유학생 41명 모집이 포함됐다.

아울러, 하반기 계획으로 △전원마을

500호 본격 조성 △경천·양지천 수변 종합개발사업 △농촌유학 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사업 △보훈회관 건립 △공설 추모공원 조성 △실랜드 웨이브선 거점공간 조성사업 △강천산 온사 치유관광지 조성 △제6회 전북특별자치도민체전 성공적 개최 등 다양한 군 핵심사업과 공약, 중장기 전략 사업들이 제시됐다.

이를 통해 군은 '군민회합, 지역경제 활성화, 돈버는 농업, 따뜻한 복지, 정주인구 증대'라는 5대 군정목표 실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최영일 군수는 "순창군 공직자들이 맡은 바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민선 8기 주요 시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며 지역민들의 삶이 점차 달라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계획했던 사업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상황 등을 세심하게 살펴 군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순창=이원일 기자

## "지리산 제철 야생화 사진 만나요"

### 남원 지리산 허브밸리, 사진전시관 사진 여름꽃으로 새단장

우리나라 티벳 고원이라 불리는 운봉 지리산 허브밸리에서는 여름을 맞아 관리동에서 전시 중인 지리산 야생화 사진전시관 사진을 여름꽃으로 새 단장을 마쳤다.

이곳 전시관은 계절마다 제철 야생화 사진으로 변경 전시하고 있어, 그 계절에 피는 지리산 야생화 사진을 현장에서 관람할 수 있다. 이번 여름꽃 사진 전시는 7~10월까지 운영 예정이며, 11월부터는 가을꽃 사진을 전시할 예정이다.

이같이 전시 기간이 한정되어 있어 관람 시기를 놓치면 아쉽게까지 기다려야 하기에 이를 놓치지 않으려는 야생화 마니아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전시에는 나도제비란, 닭의난초 등 총 92점의 야생화 사진을 전시하고 있으며, 흔히 볼 수 있지만 이름은 알지 못했던 야생화부터 지리산에서만 자생하는 희귀한 야생화 사진까지 다



채로운 구성으로 사진을 전시 중이다. 전시관 운영은 정연욱(전 마산대학교 교수) 박사의 사진 제공으로 운영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리산 허브밸리 방문객을 위해 소중한 지리산 야생화 사진을 제공해 주신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며, "허브밸리를 찾는 방문객들이 일상에서 받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잠시나마 심신을 치유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남원시, 지방재정 세미나 개최

남원시는 25일 시청 회의실에서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 방안을 위한 '찾아가는 지방재정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남원시가 공동 주최하여 지방재정 전문가 및 교수, 관계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와 토론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남원시 이전 재원 감소 시대의 재정 운용의 현실 △보통교부세 등 세입 확보 방안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효율적인 세출구조 조정 등을 주제로 논의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남원시는 자문 의견을 토대로 세입예산 확충 및 효율적인 세출예산 편성 운영 등 관리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며, 좌장 순희준 교수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남원시는 지방보조금 관리, 세출구조조정 등을 추진하며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나가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가 조금이나마 남원시 재정운용에 보탬이 되는 자리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엔 치즈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 임실엔 치즈

벨기에 출신 지명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엔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엔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